

# '5월의 미식' 나주 영산포 흥어·한우축제 열린다



### 시, 22~24일 영산강 둔치체육공원...체류형 축제 확대 체험-휴식 결합...포토존·산책로 등 계절 관광지 매력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5월 연속 축제 시즌의 대미를 장식할 영산포 흥어·한우축제를 개최하고 미식과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선보인다.

3일 나주시와 영산포 흥어·한우축제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영산강 둔치체육공원 일원

에서 '제22회 영산포 흥어·한우축제'를 개최한다.

앞서 15일부터 17일까지 나주읍성 일원에서 '천년나주목읍성문화축제'가 열리고, 이어지는 이번 축제로 나주는 5월 내내 축제 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축제는 600년 전통의 '영산포 수성 흥어'와 지역 대표 브랜드 '나주들애찬

한우'를 중심으로 한 남도 미식 축제로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먹거리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기존 먹거리 중심 행사에서 벗어나 공연과 체험, 휴식이 결합한 체류형 축제로 확대 운영하며, 영산강 둔치 꽃양귀비 단지과 연계한 포토존과 산책 공간도 조성해 계절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더할 계획이다.

나주시가 축제 시기에 맞춰 조성한 16만㎡ 규모의 붉은색 꽃양귀비와 꽃 사이사이를 수놓은 하얀 안개조가 어우러지며 환상적인 풍경이 연출돼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

끌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흥어 할인 판매(국내산 35%, 수입산 50%)와 흥어거리 연계 행사, 나주들애찬 한우 직영 판매장(30% 할인)과 구이존 운영을 통해 다양한 미식 콘텐츠를 선보인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에어바운스와 인생네트, 랜덤플레이댄스, 키다리 풍선아트, 매직 버블쇼 등 어린이와 청년층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상시 운영하고 로컬푸드 판매장과 플라마켓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과 소상공인 제품도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주자는 영산강 둔치체육공원과 인근 주차장, 도로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축제 기간 분위기를 달궈줄 현악연주2, 한일합창단 등 출연한 초호화 트로트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장흥준 영산포 흥어·한우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5월의 나주는 미식과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의 도시가 된다"며 "많은 관광객이 나주를 찾아 역사와 전통, 미식과 문화 등 나주만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조원희 기자 pose007@gwangnam.co.kr



함평군애호박연구회는 최근 충북 청주시 옥산농협 청원생명애호박공선회 공선출하장을 방문해 공동선별·출하 시스템 등을 확인했다.

사진제공=함평군청

## 장흥 '찾아가는 지혜의 숲' 강좌 진행

### 9일 청소년수련관서 김겨울 작가 특강

노벨문학도시 장흥군이 책을 매개로 주민과 소통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장흥군 정남진도서관은 오는 9일 장흥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북투버이자 작가인 김겨울을 초청해 '2026년 찾아가는 지혜의 숲 도민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지역 주민의 독서 문화를 확산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강연에서는 '독서의 기쁨'을 주제로 책을 통해 얻는 위로와 통찰,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독서 습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강연 이후에는 질의응답과 사인회를 통해 작가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강연자로 나서는 김겨울 작가는 유

튜브 채널 '겨울서점'을 통해 독서 콘텐츠를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온 대표적인 북 인플루언서로, '독서의 기쁨', '할까 안에서 유영하기' 등을 집필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도서관 이용자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정남진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061-863-545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도민강좌가 주민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와 교육이 어우러진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책 읽는 일상'이 문화가 되는 노벨문학도시 장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 함평 '지역 특산물' 애호박 선진지 견학...농가 현장 적용안 모색

### 공동선별·출하 시스템 등 지역 실정 맞는 기술보급 개선 강화

함평군이 지역 특산물인 애호박의 연중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선진지 견학에 나섰다.

3일 군에 따르면 최근 함평군애호박연구회 30여명은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애호박 농가 등을 방문해 공동선별·출하 체계 등의 중요성을 제강했다.

이번 견학은 애호박 주산지인 청주에서

애호박 재배 기술과 유통 체계를 직접 확인하고, 함평에 적용해 애호박 생산 농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 2025년부터 2년간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을 통해 애호박 연중 생산 종합 기술 보급을 추진하며, 지역 특화작목 육성과 농업인 소득 증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견학에 참석한 회원들은 옥산농협 청원생명애호박공선회 공선출하장을 방문해 공동선별·출하 시스템을 배웠다. 회원들은 선별 기준을 통일하고 대형 유통 시장에 안정적으로 출하하는 운영 방식을 함평 농가에 도입하기 위해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청주 애호박 도경 재배포장에서는 재배 환경과 관리 기술을 살펴보고, 함평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술 도입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시설 운영 방식과

생육 관리 기술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문경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 애호박 재배 기술뿐만 아니라 출하 체계 조직화와 공동 출하 확대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기술보급과 유통 체계 개선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규 기자 6263739@gwangnam.co.kr

### 12세 무 청소년 HPV 접종

### 영암, 6일부터 무료 실시

영암군이 청소년들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3월 영암군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HPV 예방접종 지원을 기존 여성 중심에서 남성 청소년까지 넓혀 시행한다.

HPV는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항문암, 구인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남녀 모두 예방이 필요하다.

이번 확대에 따라 2014년생 남성 청소년은 HPV 4가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으며, 기존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 지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백신 접종은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영암군보건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삼호보건지소는 월·수·금 같은 시간에 운영된다.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희숙 영암군보건소장은 "예방접종 대상이 확대된 만큼 적기에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 고흥, 중동사태 피해 기업 지방세 지원

###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기업 부담 완화

고흥군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동 사태로 인해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이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비롯 해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

기, 지방세 납부금 분납, 행정제재 유보 등이다. 기업 상황에 맞춰 세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는 기본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하며, 추가 연장을 통해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체납처분 또한 1년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어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 계약 지연, 거래 중단 관련 자료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춰 군청 재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지방세가 부과 예정이거나 이미 부과된 경우 등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시로 가능하다. 국제정에서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확인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지방세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 담양, 모바일 건강관리사업 '가동'

### 참여자 70명 선정...2주간 맞춤형 관리

담양군이 모바일 건강관리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해 건강검사를 진행하고, 선발한 건강위험군 7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24주 관리에 나섰다.

3일 군에 따르면 최근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고밀도(HDL) 콜레스테롤 등 검사를 통해 건강위험요인이 많은 예비 대상자 70명을 최종 참여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등 전문 인력으로부터 24주간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또 모바일 앱을 통해 식사·운동 일기를 기록하고 걸음 수를 확인하며 상시 관리 받는다. 군은 참여자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

록 건강 과제 수행과 앱 활동 실적에 따른 점수제를 운영한다.

활동 실적이 좋은 참여자에게는 격려품을 제공해 참여 동기를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전 검사로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한 만큼, 24주간 중도 탈락 없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꾸준히 관리하겠다"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로 군민의 건강관 생활 습관을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시우 기자 lss270@gwangnam.co.kr



김준철 강진부군수(오른쪽)는 최근 일본 나가사키현 하사미정을 방문해 마에카와 정장 등과 당도 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강진군청

## 강진, 일본 하사미정 '도자축제' 방문

### 도자 산업 발전·민간 교류 활성화 실무 협의

강진군이 최근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나가사키현 하사미정의 초청을 받아 3박 4일간의 공식 방문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세계적인 도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준철 강진부군수를 비롯한 6명의 관계자로 구성된 방문단은 하사미정 일원에서 총총한 일정을 소화하며 강진 청자의 우수성을 알리고 교류의 폭을 넓혔다.

방문단은 하사미정 청사에서 개최된 교류 협의·환영식에 참석, 마에카와 정장과 현지 민간협회 회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도자 문화의 전승과 현대적 변

용, 축제 운영 노하우 공유 등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두 도시의 공통 분모인 '도자기'를 매개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참석자들은 향후 실질적인 협력 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환경과 지지의 뜻을 밝혔다.

방문단은 '제68회 하사미정 도자기 축제' 개막식에도 참석, 야키모노 공원에서 열린 테이프 커팅식에 참여해 축제의 성공적인 개막을 축하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하사미정 방문을 통해 자매도시 간의 깊은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하사미정의 축제 운영 사례와 도자 산업 육성 정책을 강진 청자 산업에 적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강진=이진욱 기자 sa4332252@gwangnam.co.kr